

호남 최초 유적발굴관 세운다

남원시, 운봉가야 실체 접근할
학술조사공간 마련 위해 건립 추진
유곡·두락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



남원 가야 고분군 유적발굴관 내부 예상도

남원시가 그동안 유물 발굴과정 중 우천 시에 발생하는 유적 수해 피해나 발굴작업의 중단으로 효율적인 유적보호와 발굴조사에 차질을 빚어온 점을 개선하고, 운봉가야와 기문국의 실체에 접근할 효율적 학술조사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유적발굴관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 호남 최초로 유적발굴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근 남원시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유적발굴관 건립 설계 및 전시 제작설치 제안 공모를 진행해 최근 설계착수에 돌입했으며, 유곡리, 두락리 일대에 들어설 유적발굴관은 제38호분을 대상으로 총면적 1000㎡에 총 19억의 예산을 들여 가설덧집 형태로 건립될 예정이다.

발굴관은 남원 가야고분군의 특징인 타원형 봉분형태에 구조는 분해조립 이동설치가 가능한 목조골조에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 외장마감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발굴작업공간, 전시 체험공간, 간이수장고, 간이사무실, 설비실, 야외공간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유적발굴관 내부에는 고분 발굴현장 직관량 화랑과 고대 남원 운봉가야 및 기문국의 역사와

그동안의 발굴성과를 소개하는 전시공간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원시는 이번 유적발굴관 내부에 발굴 체험 공간도 조성해 운영하기로 하며, 앞으로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거의 비공개로 이뤄졌던 유적발굴 현장을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을 예정이다.

남원시는 설계 착수가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자문

을 통해 실시실계를 완료하고, 올해 말 제38호분 현장에서 유적발굴관을 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호남 최초로 유적발굴관을 건립하는 만큼 역사체험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유적발굴관 건립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인 가야 고분의 성공적인 연구성과도 도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문화가 있는 날, 동네책방에서

전주시립도서관, 23-26일 '소소한 이야기' 문화강연 다채

전주지역 동네책방들이 다채로운 문화강연이 펼쳐지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키로 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정부가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을 재개키로 한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지역 내 동네책방 5곳에서 '동네책방에서 들려주는 소소한 이야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동네책방은 단행본 도서만 판매하는 작은 책방들로, 독서 동아리와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책 문화를 꽃피우는 작은 문화공간이다.

동네책방에서 들려주는 소소한 이야기는 △책방같이:[가치] △물결서사 △책방놀이 △소소담 △카프카 등 책방지기의 책 이야기, 저자초청 강연 등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첫 날인 23일에는 전선영 책방같이:[가치] 대표와 임주아 물결서사 대표(시인)가 각각의 책방에서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그림책 읽기'와 '선미촌에서 책방을 한다는 것'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24일의 경우 소소담과 책방놀지에서 각각 박서진 작가와 이성오 작가가 '고양이가 된 고양이'

와 '한방, 의료인가 문화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서점 카프카에서 강성훈 대표의 '함께 쓰는 글쓰기'를 주제로 한 강연이 펼쳐진다.

시립도서관은 동네책방에서 운영되는 강연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15명의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열 체크와 손소독제 이용,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네책방들은 이번 문화강연을 시작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동네책방과 전주시립책방도서관 등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남기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이번 동네책방 강연을 통해 중요한 문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동네책방이 책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며 시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동네책방의 문화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네책방 강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화도서관 종합자료실(063-281-6429) 또는 전주시립도서관 북실(230-18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한글대장경, 순창에서 만나다

순창군립도서관, 대모암으로부터 280여권 등 도서 기증받아

순창군립도서관은 18일 대모암(주지 동산스님)으로부터 '한글대장경' 280여 권, '축역대장경' 12권 등 총 300여 권의 도서를 기증받았다.

대모암은 조계종 선운사에 속한 전통사찰로 순창을 백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248호 아미타삼존불상을 모시고 있다. 동산 스님은 "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총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많은 사람과 만나 세상을 지혜와 자비로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기탁배경을 밝혔다. 이어 "세계의 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을 또 하나의 빛나는 유산인 우리 한글로 번역을 완료했기에 군민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기증된 한글대장경은 팔만대장경에 이어 또 하나의 대장경을 만들었다고 할 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책이다. 한글대장경은 고려대장경 재조본의 영인본을 저본으로 동국

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에서 지난 1964년부터 2001년까지 37년 동안의 번역을 거쳐 318권으로 완간된 우리말 대장경이다.

순창군립도서관 관계자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고 있는 이번 전문도서 기증으로 다양한 도서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독서, 조사, 연구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글대장경은 기증도서 반입 절차를 마친 뒤에 별도 서가에 비치되어 이용자에게 대출할 예정이다.

한편 순창군립도서관은 현재 4만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전자책 1만 2천 권과 오디오북 3천 6백 권 등을 대여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가 숨 쉬고, 문화와 함께 하는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고창 복합문화도서관 제안 공모 수상작 선정

18일 고창군은 고창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지구 내에 건립 예정인 복합문화도서관 제안공모에서 당선작 1점 등 총 2작품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심사를 통해 (주)유현준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주)건축사사무소 오피의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큰 나무 숲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 같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적인 한옥의



복구조와 공간을 재해석해 다양하고 품요로운 공간 구성을 제안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27일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담판'

국립민속국악원, 심청가 중 '공양미 삼백식' 주제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27일(토) 오후 3시 예원당에서 6월의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담판(이하 담판)에서 심청가 중 '심청의 성장과 공양미 삼백식'을 주제로 펼친다.

담판은 판소리의 인류무형유산으로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객들에게 판소리의 인문학적 지식을 향상시켜주는 해설이 있는 판소리 공연이다.

심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올해 담판에서는 풀이꾼 원기중(국문학 박사)과 이야기꾼 왕기석(국립민속국악원 원장)의 진행으로 매달 명창들의 판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27일 공연에서는 국립민속국악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수미, 김승 명창이 판소리를 들려주며, 이날 감상할 대목은 심청의 밭 동남 대목부터 시작해 장승상대 부인 만나는 대목, 심봉사 들에 빠지는 대목, 화주승에게 공양미 삼백식 약속하는 대목이다.

공연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객석 띄어 앉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전예약을 통해 선착순 100명으로 전화(063-620-2324~5) 혹은 카카오톡 채널(상담직원과 대화)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